

미국 백악관, 국가바이오경제위원회 출범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 3월 22일, 미국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리더십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바이오경제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발표함.

-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바이오경제위원회(National Bioeconomy Board) 출범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바이오기술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위원회는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를 통해 사회적 복지, 국가안보, 지속 가능성, 경제적 생산성 및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 국가바이오경제위원회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상무부 및 국방부가 공동의장을 맡고, 국무부, 국립과학재단,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항공우주국, 법무부, 에너지부, 농무부 및 국가정보국장실 등 9개 연방부처 및 기관이 위원으로 참여함.

□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9월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명령 발표 이후 관계부처에서는 그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바이오경제위원회가 미국 바이오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주도할 예정임.

- * 2022년 12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바이오경제 고도화를 위한 바이오제조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함. 또한,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바이오경제 측정 및 위험 평가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휘(Lexicon) 개발을 주도함.
- * 2023년 3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미국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를 위한 담대한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환경보호국과 농무부는 바이오 규제의 모호성, 격차 및 불확실성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함.
- * 2023년 6월,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확대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함.
- * 2023년 12월, 바이오경제 데이터에 관한 부처간 실무그룹은 바이오경제 이니셔티브를 위한 데이터에 대한 비전, 필요성 및 제안된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함.
- * 2024년 3월, 농무부는 탄력적인 바이오매스 공급 구축 보고서를 발간함

□ 한편, 유럽집행위원회도 지난주(3월 20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등에 보낸 통신문을 통해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과 같이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를 육성하기 위해 연구, 규제, 투자, 표준, AI 활용, 국제협력 등이 담긴 정책조치계획을 발표함.

- 특히 이 조치계획에는 EU 회원국마다 파편화된 규제 단순화 및 시장접근 촉진을 위해 'EU바이오기술법' 제정을 검토하고, '규제 샌드박스' 설립을 추진하며, 기업의 규제 및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EU바이오허브' 설립 내용이 핵심과제로 제시됨.
- 또한, 올해 말까지 미국, 인도, 일본, 한국과 '국제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파트너십'을 출범해 연구 및 기술이전, 규제 및 시장접근 관련 전략적 협력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밝힘.

<참고자료>

1. The White House Advances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Leadership with the Launch of the National Bioeconomy Board, 백악관 보도자료, 2024.3.22
2. Commission takes action to boost biotechnology and biomanufacturing in the European Commission, 유럽집행위원회 보도자료, 2024.3.20